

멸쟁법을 통해서 본 승가의 쟁사 해결 방법(2) 칠멸쟁법

공극적 목적은 승가의 화합 유지에 있다

지난 주 살펴본 바와 같이 승가에서 발생하는 쟁사는 언쟁·역쟁·법쟁·사쟁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승가에는 쟁사가 발생했을 경우 각 쟁사의 지멸을 위해 적용되는 승가갈마가 있다. 바로 칠멸쟁법(七滅諍法, satta adhikaraṇasamathā dhammā)이다. '멸쟁'은 '아디까라나 사마타(adhikaraṇa-samatha)'로 '쟁사(아디까라나)를 가라앉힌다(사마타)'라는 의미이다. '가라앉혀 고요하게 한다'라는 의미로부터 옛날 수 있듯이 칠멸쟁법의 공극적인 목적은 승가의 화합 유지에 있다. 승가에서 발생한 싸움을 신속하게 가라앉힘으로써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칠멸쟁법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칠멸쟁법은 현전비니(現前毘尼, sammukhāvīnaya)·억념비니(憶念毘尼, sativīnaya)·불치비니(不癡毘尼, amūhavinaya)·자언치(自言治, paṭīnā)·다인어(多人語, yebhuyyasikā)·역죄상(覓罪相, tassapāpiyyasikā)·여초부지(如草覆地, tinavathāraka)이다. 칠멸쟁법은 바라제목차에 포함돼 살 때마다 암송되는 중요한 규범들로, 승가에서 발생한 쟁사를 가라앉히고 말하여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승가 운영상 매우 중요한 법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4종의 쟁사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칠멸쟁법의 관계를 빨리움에 따라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언쟁(言諍, vivādādhikaraṇa)
 - ① 현전비니
 - ② 현전비니 + 다인어
- (2) 역쟁(覓諍, anuvādādhikaraṇa)
 - ① 현전비니 + 억념비니
 - ② 현전비니 + 불치비니
 - ③ 현전비니 + 역죄상
- (3) 법쟁(犯諍, āpattādhikaraṇa)
 - ① 현전비니 + 자언치
 - ② 현전비니 + 여초부지
- (4) 사쟁(事諍, kiccādhikaraṇa)
 - 현전비니

울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4종의 쟁사와 칠멸쟁법의 관계는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빨리움에 근거해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언쟁은 불교의 법이나 율의 해석에 관해 의견이 나뉘어 다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전비니' 혹은 '현전비니에 다인어를 병행'하게 된다.

- 1. 언쟁
 - (1) 현전비니
 현전비니는 칠멸쟁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쟁사 해결 방법으로 네 가지 쟁사 모두에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빨리움에 의하면 현전비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가현전(僧伽現前)·법현전(法現前)·율현전(律現前)·인현전(人現前)의 네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승가현전은 쟁사 판정을 위한 갈마를 하는 곳에 현전승가의 비구들이 전원 출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화합 승가를 형성하여 갈마를 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① 갈마에 참석해야 할 비구들이 전원 참석할 것: 갈마를 할 경우 지역적 한계인 계(界, sīmā)를 중심으로 성립한 현전승가 안에 있는 비구들이 전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여욕(與欲)해야 할 자는 여욕할 것: 만약 병 등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자는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른 비구를 통하여 승가에 알려야 하는데 이것을 여욕이라고 한다.

③ 현전(비구들이)비난하지 않을 것: 갈마에 출석하는 자가 모두 청정하여 비난받는 비구가 없음을 의미한다. 갈마에 참석하는 비구들의 청정은 갈마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화합 승가가 이루어진 것을 승가현전이라고 한다. 이 현전승가가 바로 쟁사를 판정하는 주체가 된다.

법현전이란 교법이 현전하고 있는 것이며, 율현전이란 율이 현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두 가지는 쟁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율이 현전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 두 가지에 근거해 쟁사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人)현전이란 쟁사를 일으킨 원고측 비구와 피고측 비구가 모두 출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라도 결석한 자리에서는 쟁사 판정을 할 수가 없다. 반드시 양쪽 비구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하며 쟁사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갈마나 그 판정 결과는 무효임을 의미한다.

현전비니는 쟁사 판정을 위한 법정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이 법정에서 쟁사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이 갖추어지면 회의를 진행하는 총명 유능한 비구, 즉 갈마사는 쟁사를 일으킨 양쪽 비구의 의견을 모두 듣고 승가의 비구들과 함께 법과 율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된다. 양쪽 비구가 모두 이 판단 결과에 납득하면, 갈마사는 이를 백(白, ñatti)으로 제시한다. 백이란 회의의 의견을 말한다. 그리고 백사갈마에 의해 승가 전원의 찬부를 확인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쟁사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쟁사가 발생한 승가에서 현전비니로 쟁사를 말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말하자면 쟁사를 일으킨 양쪽 비구가 판



2008년 수행종은 진작을 위한 대중결계와 포살·갈마에서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특강하는 모습

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된다. 빨리움에 근거하여 현전비니에 의한 쟁사 해결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첫 번째 형식을 시도해 보고 실패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법을 차례로 사용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① 승가·법·율·사람의 4법 현전에 의한 현전비니

: 쟁사가 발생한 주처에서 쟁문을 하는 양쪽의 비구를 불러 놓고 화합 승가가 법과 율에 근거하여 판정하는 방법.

② 도중단사(道中斷事)

: A승가(쟁사가 발생하여 ①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멸쟁에 실패한 승가)로부터 B승가(비구의 수가 보다 많은 근처의 주처)로 쟁사 해결을 부탁하러 가는 도중에 쟁사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도중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 이 역시 사법현전의 승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보다 많은 비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주처의 현전승가에 쟁사 해결을 의뢰하는 방법. 이 역시 사법현전의 승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 형식

: ①②③이 모두 실패하고 이견(異見)이 많아 도저히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는 ①의 승가에서 '단사인(斷事人, ubbahika)'이라고 불리는 위원들을 골라 그 위원회에 쟁사 해결을 위임하게 된다. 단사인으로는 계율을 잘 지키고, 교법과 계율에 능통하며, 공평하고, 쟁사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의 10 가지 덕목을 갖춘 총명 유능한 비구가 선발되는데, 이 단사 위원회에서 법·율·사람의 현전에 의해 쟁사가 해결되고 양쪽 비구가 그 결과를 승인하

면 끝나게 된다.

⑤ 단사인에 의해 현전비니를 하는 동안 심의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비구를 제외시키고 행하는 방법.

: 단사 위원회에 의하여 현전비니를 하는 동안 심의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비구가 있으면 백이갈마에 의해 그를 제외시키고 해야 한다. 단사비구가 쟁사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바라제목차나 경분별에 정통하지 못하여 문자에 사로잡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패 비구가 있을 경우, 혹은 바라제목차에는 정통하나 경분별에는 정통하지 못한 비구가 있어 쟁사 해결을 방해할 경우에는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구끼리 하는 것이다.

이 방법들을 사용하여 법과 율에 따라 해결된 쟁사에 관해서는 그 결과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문제 삼는 자는 단타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단, 쟁사를 일으킨 비구가 그 판정이 여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승가에 가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호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승가에서 다른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이전의 승가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에 의해서 이전의 승가가 자신들의 판정에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갈마를 다시 행하고 지사비구에게 죄를 묻게 된다.

한편, 현전비니의 방법이 전부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현전비니에 다수결에 의한 멸쟁법인 '다인어'를 병행해 쟁사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계속>



이자량(HK연구교수, 일본 동경대 박사)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2)

아쇼카선언

"불교는 이웃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진리에 대한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생사윤회의 고해를 건너는 뗏목이라고 하십니다. 불교,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전통마다 진리에 대한 표현은 다를 수 있으며 진리에 이르는 방법 또한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과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표현하는 말과 그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표현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진리는 더 큰 진리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21세기 아쇼카 선언] 일부

위 인용문에서 '진리'라는 말 대신 존 히이 말한 '하나의 공극적 실재' 혹은 '영원한 일자(the Eternal One)'를 대입해 보면 종교다원주의를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신론의 불교를 유신론의 불교로 바꾸는 궤변행위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화쟁위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종교다원주의가 이미 용도 폐기된 가설이라는 사실이다. 존 히이, 폴 니터와 같은 '신중심적' 다원주의자들의 가설은 기독교 내부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신중심적'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은 큰 설득력이 없다. "왜 공극적 실재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들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중심적' 다원주의의 가설은 이미 용도 폐기됐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고전적 다원주의'라고 부른다. 즉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상정하고 그 아래 구성인자들의 다원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구시대'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상적 기반이 유일신론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서구신학자들의 관점으로 확대된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은 기자는 불교닷컴 9월 18일 보도에서 "폐기돼야 할, 혹은 극복되어야 할 이 구시대적 관념이 오늘날 조계종단에서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이론의 이념적 틀로 차용되었다는 데 아쇼카 선언의 비극이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한편, 김영태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요구하는 다원주의는 어떤 공통점을 전제로 하는 그런 다원주의가 아니다. 서로 다른 것들의 독특성을 전제로 하는 다원주의이다. '갑', '을', '병'이 각각 독특하여 그 사이에 아무 공통점이 없을 때, 진정한 다원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은 기자는 10월 13일 보도에서는 "지난 30여 년 간 종교 간 대화의 논리는 존 히이와 폴 니터의 '신(실재) 중심주의'에 근거한 대화였다. 그러나 신(실재) 중심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학을 위한 신학', '교회로부터 유린된 신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유포의 종교 엘리트 그룹 외에 도무지 현실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이론이었다. 한 두 해도 아니고 무려 30년 동안 현장 검증에서 실패한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미 실패한 용도 폐기된 종교다원주의를 근거로 조계종 화쟁위에서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초안)을 만들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불교와 기독교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들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여래장(如來藏)·불성(佛性)·진여(眞如) 등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극적 실재(實在)와 같다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불교는 '하나의 공극적 실재(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면 이미 불교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아쇼카 선언'은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한편, 윤이훈은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에서 종교 간의 대화는 종교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turn em on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